

교수도 기업인도 '불교공부'

신행 현장

동국대 불교대학원 후기신입생들

2일 일요일 오후 6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서운길 교수의 '불교학개론' 강의가 진행중인 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서 교수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종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몰두하고 있는 중년의 우바새, 우바이들이 눈에 띈다.

모두 불교대학원 2000학년도 후기 신입생들이다. 이번 신입생들 중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많다. 타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물리학자를 비롯해 벤처 캐피탈리스트, 대기업 중간관리, 외국은행 지배인 등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이 23명의 석사과정자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을 차지한다.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이 불교대학원에 온 까닭은?

첨단 자본시장을 무대로 뛰고 있는 (주)다산 캐피탈의 대표이사 구병진(39). 그는 요즘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학부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자연과학 전반에 걸쳐 공부했고, 경영학 석사·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을 공부한 경영학 박사 출신 전문 경영인이다.

하루를 초단위로 나눠 산다고 할만큼 바쁘게 사는 구씨는 과연 어떻게 사는데 여유를 살리는가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 불교학과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한다. 구씨는 "최근 우리 경제는 벤처 캐피탈 마켓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주체들은 정신적인 공허함에 시달리며 혼돈을 겪고 있

다"면서 "나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이었나 되돌아보고, 첨단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온 젊은이들과 기업가들을 위한 도덕적 토대를 불교를 통해 세울 수 있도록 연구해 집대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나경준 이사(47)도 가차돈의 시대에 기업경영에 대한 좌표를 찾기 위해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나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종지부를 찍고, 투명경영,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0년도 후기 신입생 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문 경영인과 지식인들은 지위의 고하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지한 자세로 불교공부에 임하고 있다.

석사과정 23명중

전문직 종사자 11명

"정신안정 얻는 값진 시간 기대"

환경을 염두한 경영, 고객을 위한 경영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평소 불자로서 해보고 싶은 공부이기도 했지만 회사의 여러 부분을 조정·기획하고 경영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 보면서 '인연법'과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경영철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

불교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듣고 있는 뉴욕은행 서울지점 지배인 조미영(42)씨. 조씨는 인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선 관련 책을 탐독하게 계기가 됐다.

이미 6개월 과정의 조씨 불교대학을 수료하기도 한 조씨는 불

교대학원에서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택할 예정이다. 인간의 삶 중에서 인생의 가치를 맞출 수 있고, '참사람'으로 돌아가는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정신세계를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할 목적으로 불교대학원에 등록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임인화 교수(55), 동료가 권한 불교서적을 보고 삶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상산중학교 교사 양해신(46)씨, 사내 법무회 활동을 통해 불교공부에 대한 욕심을 키운 한국은행 조사업정 육련(49)씨, 종단협 국제교류위원

회 중국담당이기도 한 통역·번역 프리랜서 이인옥(42)씨, 힘터공동체 농장장 정운봉(67)씨, 연세산업(주) 대표이사 조재완(41)씨, 수원 권선교 교사 심한수(34)씨 등이 불교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같은 전문직인사들의 불교열풍에 대해 서운길 교수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보화를 리더하는 현대 지식인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며 "연기론과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불교는 그런 그들에게 평정과 조화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하고, 인간 내면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도광선 기자 (psdo@buddhania.com)

생활속의 불교

평생 두고 양식이 넉넉한 도리

어느 한 분야에서 우뚝 솟은 사람들. 흔히 일가(一家)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대개 20~30년을 외풍으로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체 사장이 되기까지는 입사 이후 25년쯤 걸리고, 은행장이 되려면 입행 후 30년쯤 걸린다고 한다.

학문의 길을 갈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족히 20년의 세월을 책과 씨름해야 한다.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도 모자랄 만큼 운동 눈물과 땀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만큼은 속성으로 알기를 원한다. 한두 권의 불서를 읽고 나서, 또는 스님들의 법문을 몇 차례 듣고 나서 '불법은 어려워...'라고

말한다.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만도 1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서 불법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인다. 평균 점수 몇점을 올리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던 그때의 노력은 다 잊고서 불법만큼은 단숨에 완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불법공부의 궁극은 세간 공부에 견줄 바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사구체(四句偈) 하나만 제것으로 만들어도 그 공덕은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 그런 큰 공부를 어찌 세간의 노력에 비할 것이며, 더욱이 심본의 일 아니 백부의 일에도 못 미치는 노력으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세태가

아무리 '빨리빨리'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불법공부를 하는 태도만큼은 소리를 지며 흐르는 길고 긴 강물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칭찬에 미혹하지 말고, 얻은 바 없음에도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건 삼부부 중생심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불법공부만큼은 따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해 나갈 수 있다. 마음먹기 따라서는 천하에 쉬운 것이 불법공부인 셈이다. '행주좌와 어묵등장'의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불법공부인 것이다.

'불법은 어려워...'라고 말하기 전에 불법공부의 궁극을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평생 동안, 아니 세세생생 양식이 풍족한 도리는 불법공부에 있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본래 부처 마음인데 깨닫지 못해 중생의 삶"

불교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不二法門)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가 하나이며, 시간적으로는 한 순간과 영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하나이고, 마음과 몸이 하나이고, 고와 라이 하나이며, 현실과 영원의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잡다한 현상들은 이렇게 '하나'가 펼쳐내는 다양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리의 참된 실상은 참으로 미묘해서 고요한 본 모습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갖가지 모습을 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는 부처들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둘로 갈라짐의 세계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세계이며 시간이 성립하는 세계입니다.



지광스님
불교선원장

며, 우리의 본성이 부처임을 투철히 믿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형식의 길입니다.

참선과 명상, 기도 등은 우리들의 부조리한 생각을 걷어내고 부처님과 하나되고 본질과 하나되는 경건한 작업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수행은 생각의 끊임없이 기도하면 영험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명을 걷어내고 광명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화를 통해 삼계육도가 갈라지고 중생이 부처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이 곧 나의 운명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이며 성불의 길입니다.

한생각 어떻게 다스리느냐 따라 나의 운명 결정

그러면 어떻게 무차별의 세계로부터 차별의 세계가 시작되고,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계로 초월하느냐? 그것은 바로 한 생각 때문입니다. 한 생각 무명으로 인해 차별의 세계, 중생의 세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말과 같이 마음은 위대한 힘입니다. 마음이라는 위대한 에너지는 생각(念)을 타고 흘러나와 물질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이 한 생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즉 부처인 것입니다.

시공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한 부처의 세계로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로 부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부처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수행의 길, 성불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요, 시공을 초월한 행로이

그러나 모든 수행도 수행도 신심과 원력이 발현됨으로써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신의 이익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중생들의 이익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바람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력에는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깃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임을 확신하고 하나인 마음,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없이는 참된 수행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과 원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행도 수행도 신심과 원력이 발현됨으로써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신의 이익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중생들의 이익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바람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력에는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깃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임을 확신하고 하나인 마음,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없이는 참된 수행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과 원력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초청 강연)

신행캘린더

10월 4일(수)

■ 10월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중 교수를 초청해 10월 다보법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10월 5일(목)

■ 강남포교원 전법일 법회=서울 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남을 기념하는 전법일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10월 6일(금)

■ 봉은사 정대불사=서울 강남봉은사는 오전 9시 30분 판전(版殿)경관 보존을 위한 정대불사 및 소금씻이 행사를 펼친다. (02)511-6070~4

■ 불림사 백교법회=창원 불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약화사 회주해인스님을 모시고 백교법회와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0월 7일(토)

■ 연화사 지역 노인 초청 경노잔치=대구 연화사는 오전 11시 법당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1천여명을 모시고 제 6회 노인 초청 경노잔치를 개최한다. (053)766-3747

■ 공무원봉사회 성지순례=감사원을 주축으로 한 전국 공무원봉사회는 7, 8일 일정사로 합동성지순례를 떠난다. (02)721-9229 안홍부

■ 우리는선우 참립법회=우리는선우는 오후 3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참립9주년 기념법회 및 화엄십승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2278-8672

10월 8일(일)

■ 관문사 낙성2주년 기념법회=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11시 4층 옥보보전에서 낙성 2주년 기념법회를 가진다. (02)3460-5300

■ 강남포교원 성지순례=서울 강남포교원은 경북 김천 참암사로 가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한서병원앞. (02)539-2631

■ 영기천도 및 보살계 수계법회=과주 보광사는 오전 10시 곡성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31)948-7700

■ 호국 홍불사 봉불식=김포 석정부사의 호국 홍불사는 10시 30분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02)418-2435

10월 10일(화)

■ 신라불교문화 영상대제=경주 불국사는 오전 10시부터 국가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 28회 신라불교문화 영상대제 및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대제에서는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의식도 함께 열린다. (054)746-9598

3개월 특별속성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3기 불교의식(범음 법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 ① 송주편(도량식·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현공편(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49제·사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0년 10월 12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1 (전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염불禪 특별정진

삼매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

염불을 하지 않아도 염불소리가 들리는 공명 현상을 체험하고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저절로 염불이 되는 경지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통독, 호흡에 맞춰 잡하는 법 석가모니불 제상염불, 향선염불, 외선염불, 고상염불, 미상염불, 수식관염불, 행주좌와 동정간에 염불 수행

- 수행일정 : 법 당 : 5시~7, 10시~12, 오후 3시~4, 8시~10
행선코스 : 8시~9, 오후 1시~2, 6시~7

- 수련회비 : 1박 2일(만원), 3박 4일(3만), 7,15,30,49,100일

- 추가 예정자 수행체험 : 호흡에 맞춰 잡하는 법, 독경, 염불, 향선, 외선, 참선, 산책제도인법을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체험하시고 즐기시면 추가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매주 참여 정진 : 토요일 저녁 8~ 일요일 아침 7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법왕정사 통불교 수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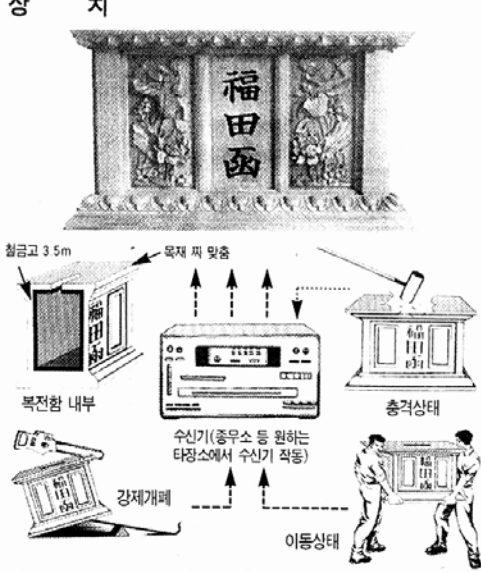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 771-7745

Fax (031) 771-6736

불 전 함

도난방지 장 치 ◆특허 2000-0011559◆



- ◆점검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 ◆복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의 개폐가 절대 불가능
-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우선 전파로 지체 경보는 물론 경보실명 경보는 다 장소에 점입사실을 알려 줌
-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서원기전 ☎문의:043-647-2378, 011-467-1472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

- 본사 02) 737-8881
- 강릉지사 033) 643-5577
- 고성지사 055) 672-0078
- 광주지사 062) 375-9986
- 대구지사 053) 983-9222
- 목포지사 061) 279-3788
- 밀양지사 055) 353-1196
- 부산지사 051) 463-5331
- 안산지국 031) 494-8859
- 영주지사 054) 674-1199
- 울산지사 052) 257-7737
- 진주지사 016) 585-2120
- 제주지사 016) 695-6885
- 중정지사 042) 527-0559
- 일본지사 031) 713-5111